

외형·수익 다 잡았다... ADC·비만치료제 신약개발 '속도'

삼성에피스홀딩스 1분기 실적

매출 전년비 14% 올라 4549억
직전 분기비 영업익 393.7% 급증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상업화 성과

지난해 11월 출범해 신약개발에 중점을 두며 글로벌 바이오 영토 확장에 나선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외형 성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뤄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확보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 비만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2026년 1분기 실적을 23일 공시했다. 핵심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26년 1분기 매출 4549억원, 영업이익 1440억원, 당기순이익 13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6%, 영업이익은 12.6%, 당기순이익은 21.8% 증가했다. 앞서 올해 1월 2026년 매출 목표표 제시한 전년 대비 10% 이상의 성장세를 이



삼성에피스홀딩스 전경

/삼성에피스홀딩스

뤘다.

또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이 393.7% 급증하면서 수익성은 가파르게 개선됐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상업화 성과가 뒷받침됐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티코보(SB4)'가 유럽 출시 10년에 접어들면서 견고한 매출을 거두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들어 유럽에서 총

4종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지역별, 제품별 판매 전략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제품도 지속 출시한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B15'는 올해 4월 유럽에서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발매될 예정이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인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 'SB16'으로도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미국 주요 처방약급여관리업

체(PBM)인 CVS케어마크와 'SB16' 자체 상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빅파마 산도스와 엔티비오 바이오시밀러 'SB36'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조기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신약 개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첫 번째 신약개발 후보인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 파이프라인 'SBE303' 연구 데이터도 공개했다.

SBE303은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네티-4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항암제다. 국내 기업 인투셀, 중국 프론티어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개발된 이 물질은 현재 미국과 한국 등에서 글로벌 임상 1상을 본격화했다. 오는 2030년까지 진행성 불응형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초기 유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영역은 항암제를 넘어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도 확장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회사 에피스빅스랩, 국내 바이오 벤처 지투자바이오 등과 함께 장기 약효 지속형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인 약물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급성장하는 비만치료제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인다.

한편,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는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 4539억원, 영업이익 905억원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12월 연결기준 매출 2517억원, 영업손실 636억원 이후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반영, 앞서 올해 1월 제시한 매출 성장률 10% 이상 가이던스도 유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통합 평가 플랫폼 첫선

美AACR서 면역항암 평가기술도 공개
임상 전 독성 리스크 사전 파악 가능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을 위한 오가노이드 기반 통합 평가 플랫폼을 처음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선보인 핵심 기술은 10개 이상 암종 유래 종양 오가노이드 모델을 기반으로 후보 타겟의 발현과 약물 반응성, 정상 조직 독성 가능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안구(Eye)·피부(Skin) 등 정상 조직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조직 특이적 독성 예측 기술은 임상 진입 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독성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학회에서 면역 억제 세포인 MDSC(Myeloid-Derived Suppressor Cell)를 포함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독일 법인인 '람다바이오로지스(Lambda Biologics)'가 AACR 2026 현장에 독립 부스를 설치하고 ADC 평가 플랫폼 출시를 공식 알렸다.

실제 인체 종양 환경을 구현한 오가노이드 기반 면역항암제 평가 기술도 함께 공개했다.

이 기술은 종양 주변 면역세포의 동태와 작용을 직접 확인해 기존 2D 세포 모델로는 어려웠던 인체 면역 반응을 보다 정밀하게 재현한다. 특히 특정 약물에 의해 MDSC의 종양 침투가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면역항암제의 효능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

운 방법론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과의 합작법인인 포도 테라퓨틱스(Podo Therapeutics)는 동아애틀라스가 개발한 ADC 약물의 효능 평가 결과를 이번 학회에서 공개했다. 환자유래 오가노이드(PDO)와 면역세포 공배양 플랫폼을 활용해 ADC 단독 효과뿐 아니라 표적 치료제 및 면역 치료제와의 병용 효과까지 다층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ADC 신약 모두 환자 투약 돌입

지난해 美 FDA 임상 승인

셀트리온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 3종이 모두 환자 투약 단계로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환자 투약이 진행 중인 신약 후보물질은 CT-P70, CT-P71, CT-P73 등 3종으로 해당 물질들은 모두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1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이후 임상시험 개시 절차를 거쳐 CT-P70과 CT-P71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CT-P73은 가장 최근인 올해 1분기부터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이들 ADC 신약 후보물질은 전임상 단계에서 차별화된 안전성과 우수한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전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임상 1상에서 용량별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환자 투약을 시작한 ADC 신약 후보

/이세경 기자

물질 외에도 다중항체 신약 후보물질인 CT-P72 역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T-P72는 현재 임상시험 기관을 통해 환자 모집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내달 첫 환자 투약을 개시할 예정이다.

각 후보물질별 적응증을 살펴보면 ▲CT-P70은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위식도암 등 ▲CT-P71은 요로상피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CT-P73은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등 ▲CT-P72는 방광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등을 타겟으로 개발 중이다.

4종의 신약 후보물질 모두 미중국의료 수요가 높은 항암 영역을 적응증으로 하는 만큼 빠른 상업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기본 전략으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CT-P70은 지난해 12월, CT-P71은 이달 각각 FDA로부터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HK이노엔, 수출입銀과 취약계층 돕는다

새싹보리 포함 총 5억 규모 꾸러미

HK이노엔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 재원을 조성하는 매칭기부형으로 진행된다. HK이노엔은 자사 음료 제품 '새싹보리'를 3억원 상당(약 12만 병)으로 지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2억원을 기부해 총 5억원 수준의 꾸러미를 전달한다.

HK이노엔 김기호 전략지원실 전무는 "건강한 지역 사회는 HK이노엔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 건강한 지역 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그냥드림 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신유근 부행장(왼쪽부터), HK이노엔 김기호 전무, 보건복지부 은성호 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남권 사무총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K이노엔

한국수출입은행 신유근 부행장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두피도 자외선 차단하세요"

'스칼프 선에센스' 개발
모발 뭉침 없는 가벼운 사용감

한국콜마는 두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스칼프 선에센스'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칼프 선에센스는 SPF 50+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하는 두피 전용 선풍제 제품이다. 얼굴에 에센스를 바르듯이 두피에 바르면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준다.

특히 이번 신 제형에는 수용성·친유성 자외선 차단 성분을 최적 비율로 배합하는 융합 기술이 집약됐다. 모발 뭉

침 없이 수분 에센스를 바른 듯 가벼운 사용감을 갖췄다. 자외선 차단제 제형 특성상 자외선 필터나 오일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두피에 발랐을 때 모발이 뭉친다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콜마는 자외선 차단에 두피 냉각 등의 효과를 더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스칼프 선미스트, 스칼프 선스프레이, 두피 전용 클렌저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피가 태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라는 점에 중점을 뒀다. 또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피 염증이 발생하고 모낭이 손상되면 서 탈모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청하 기자